하나가 되는 꿈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한 북한응원단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 이어 인기를 끌고 있다. 남북이 서로 방문하고 다양한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화합의 기운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한의 참가는 우리 내부가 안고 있는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다. 경기장 안에서는 '조국통일'과 '우리는 하나'의 구호를 남북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화합

돌이켜보면 오랜 세월 지속된 남북간의 대립은 동시에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건국 과정과 군정 하에서도 희생자가 나면 좌든 우든 부풀려 변란을 겪고 대립하고 적대시해왔다. 지나친 대립과 좌우익 편향은 결국 민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체제를 이 민족에게 남겨 주었다. 결국 20세기 초부터 한반도의 식민지화, 분할점령, 한국전쟁 등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적 비극은 지금도 여전히 한민족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같은 대립을 넘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서로 인정하는 화해의 자세, 남북 양쪽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화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7월 27일은 전쟁이 멈춘 지 50년이 된 휴전(정전) 협정일이었다. 휴전 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앞의 과제로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편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열려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모두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교류협력 확대가 평화의 기반

북핵문제가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길을 열 수 있었던 데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 정부간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다양하게 확대된 것 또한 큰 보탬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 정치군사적 문제를 경제 협력과 분리,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분단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긴장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얼마 전 민족통일과 남북 화합의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대북사업을 주도하던 한 기업인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천수를 누리지 못한 그의 불행한 죽음은 어찌 보면 민족사의 모순에서 비롯된 희생의 제물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그의 죽음이 해방 후 많은 애국자들의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를 한 기업가의 죽음으로 종결짓고 만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 나아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꿈에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주제인 '하나가 되는 꿈'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땅에서 50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는 분단과 이념의 벽을 넘어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겨레의 꿈이 되어야 한다.